

The Message

(“The Message” by Eugene Peterson의 허계영 번역 version)

빌립보서

1장

1-2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헌신한 바울과 디모데는 목사들과 목회자들을 포함,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려요.

사랑은 자라는 것

3-6 여러분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감탄을 올려 드리지 않을 수 없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탄은 곧 기도로 이어지지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처음 들었던 날부터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그 ‘메시지’를 믿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기쁨을 감출 수가 없네요. 이 위대한 일을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바로 그날, 이 일을 멋지게 완성시켜 주시리라고 난 믿어 의심치 않아요.

7-8 내가 여러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절대 ‘오빠’가 아니죠. 나의 기도와 소망은 지극히 현실적이거든요. (판타지소설이 아니라구요^^) 여러분은 내가 수감되고, 재판 받고, 무사히 출옥하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늘 나와 함께해 줬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도움들을 나와 함께 경험하기도 했구요. 요즘 내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며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이 잘 아신답니다. 때때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만큼, 나도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구요.

9-11 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하게 자라서, 여러분이 단지 ‘많이’ 사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 사랑하게 해 달라구요. 난 여러분이 ‘올바른 사랑법’을 배우길 바라요! 감정의 기복에 따라 달라지는 사랑이 아닌, 진솔하고도 지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감정’을 ‘이성’으로 점검해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진지하고도 모범적인’ 사랑의 삶을 사세요. 예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사랑의 삶을요! 즉, 여러분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결국 여러분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영혼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삶을 사시라구요!

‘메시지’를 가둬 둘 순 없죠.

12-14 친구 여러분, 내가 여기 수감된 것이, 사람들의 원래 의도와는 달리, 완전 ‘반전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그들은 날 꼴깍 못하게 가둬 두고 싶었겠지만, ‘메시지’는 오히려 더 흥왕하게 펴져 나가고 있답니다. 이곳 모든 군인들과, 다른 사람들 역시 ‘내가 메시야 때문에 수감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이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 덕에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됐지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대부분이 전보다 훨씬 더 믿음이 확고해져서, 하나님과 메시야를 담대하게 전하고 있답니다.

15-17 물론 이곳의 몇몇 사람들은 나와는 달리, 그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들 빼고 나머지는 다 지극히 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지요. ‘내가 ‘메시지’를 수호하고, 사람들을 돋기 위해 수감됐다’는 사실에 자극을 받아, 순수한 사랑의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날 오해하고는, 그저 탐욕에 찔려, 자기들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동기는 정말 악하죠. 날 라이벌로 여기면서, ‘내가 잘 안 될수록 자기들한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18-21 그럼 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들이 무슨 동기로 그러든, 난 일체 관심 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사람들 동기가 혼란스럽든, 악하든, 어중간하든… 난 신경 안 쓸 거예요. 난 그저 그 사람들이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기쁜 걸요!

그리고 난 사태가 어떻게 돌아갈지 알기에, 계속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은혜롭게 반응하고, 그로 인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날 통해 하길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실 테니까요. 난 내가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대된답니다! 여러분도 날 창피하게 여기지 않길 바라요. 오히려 이곳 감옥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 그리스도가 더 확실히 전파되고 있음을 알아 주세요. 내가 살든 죽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내 입을 막을 순 없지요. 도리어 내가 설교할 발판을 마련해 준 셈이 됐답니다. 난 살아서는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죽어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산물’이 될 뿐이에요. 결국 ‘사느냐, 아니면 더 풍성하게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인 거죠.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써 더 풍성하게 사는 삶’을, 난 절대 놓칠 수 없답니다!

22-26 물론 내가 육신을 입고 살기에, 내게 유익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살지 죽을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뭘 선택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픈 갈망이 정말 크거든요. 상황이 도무지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여겨지는 날엔 더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의 날에는, 여러분이 겪어온 일들을 회상하면서, ‘아직은 이 육신에 좀 더 머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장하고, 기뻐하는 것’을 지켜보며, 곁에서 함께하고픈 마음에 이 세상에 좀 더 머물고 싶은 거죠. 내가 다시 여러분을 찾아갈 때엔, 정말 멋진 재회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뻐할 테니까요.

27-30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바라요. 설마 내가 간다고 잘하고, 가지 않는다고 잘못하진 않겠죠? 내가 여러분을 찾아가 내 눈으로 직접 보건, 멀리에서 여러분의 소문을 듣건, 여러분의 행동은 늘 변함없이 신실해야겠죠. 작은 반대에 바로 꼬리를 내리고는 출행랑치는 일 없이, 사람들이 복된 소식인 ‘메시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통일된 하나님의 비전 아래 굳게 서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적들의 대항에 맞서 하나가 되어, 용기 있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지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많은 것들이 우릴 기다리고 있지요. 즉, 우린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믿음만큼이나 좋은 선물이랍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내가 투쟁하는 것을 다 봤고,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도 (내가 받는 고난에 대한) 최근 업데이트 된 소식을 듣고 있지요. 여러분도 나처럼 이런 투쟁을 치러야 한답니다.

2장

예수님은 스스로 노예 신분이 되셨어요

1-4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조금이라도 유익을 얻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켰다면, 여러분이 성령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이 내게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내게 조금이라도 신경을 쓴다면, 제발 내 부탁 좀 들어 주세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깊은 마음을 나누는, 영혼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거나, 입에 발린 말로 사람들을 조종하려 들지 마세요.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앞세워 주세요. ‘자신이 꼭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강박증을 버리세요. 자신은 잊은 채,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5-8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생각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지위를 사용하셔서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으셨다구요. 전혀요. 완전히요! 때가 되자, 예수님은 신성의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노예 신분을 취하셔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렇게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사셨어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자신을 낮추신 거죠. 그리고 자신의 특권을 전혀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타적이고 순종적인 삶을 사시다가, 이타적이고 순종적인 죽음을 맞으셨어요. 그것도 이 세상 최악의 죽음인 십자가형을 당하신 거예요.

9-11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그 어느 것보다 영예롭게 하셨지요. 유사이래 하늘과 땅의 피조물들이-이미 오래 전에 죽어 묻힌 것까지 포함해서-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하며 경배하고, 예수님을 만유의 주님이라고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스러운 영예를 돌려 드리게 하셨지요.

함께 기뻐해요.

12-13 친구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저, 처음부터 하던 일을 계속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 여러분은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았잖아요. 지금은 비록 나와 헤어져 있지만, 계속 그렇게 살기 바라요. 아니, 그때보다 더 열심히 순종하며 사세요! 하나님께 민감하고 경건한 태도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열정적으로 사세요! 그 열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손수, 기꺼이 행하실 거예요.

14-16 일을 할 때엔 언제나 ‘즉시,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말다툼이나 비판은 금물입니다! 이렇게 야비하고 오염된 사회에, 순수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많이 많이 불어넣어 주세요. 여러분이 잘 살아감으로써, 사람들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 주세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는 ‘메시지’를 전해 주세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난 여러분이 너무 자랑스러울 거예요. 여러분은 ‘내 이 모든 사역이 결코 혀수고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살아 있는 증거물이 될 테니까요.

17-18 지금 당장 내가 처형을 당한다 해도, ‘그리스도의 제단 위에 여러분이 드린 믿음의 제물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난 너무 기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역시 나와 함께 기뻐해야 공평하겠죠? 그러니 무슨 일을 하든, 내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19-24 내 계획은 (실은 예수님의 계획이지만) 곧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서, 여러분 소식을 낱낱이 다 가지고 오게 하는 거예요. 오,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세상에 디모데 같은 사람은 없어요. 디모데는 정말 충성스러울 뿐 아니라, 여러분을 진심으로 걱정한답니다. 여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이익만 쟁기느라 급급한 채, 예수님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디모데의 진정성은 정말…! 내가 디모데와 함께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디모데는 내게 정말 헌신적인 아들이 되어 줬어요. 여기에서 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가닥이 좀 잡히면, 곧바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려고 해요. 그리고 나 역시 디모데를 따라 바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길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답니다.

25-27 하지만 지금 당장은, 내 절친이자,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낼게요. 전에는 여러분이 날 도우려고 그를 보냈지만, 지금은 내가 여러분을 도우려고 그를 보내네요. 그는 여러분에게 돌아가기를 넘넘 원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이미 들었겠지만, 에바브로디도는

건강하게 회복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건강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 주고 여러분을 안심시켜 드리고 싶어한답니다. 알다시피, 그는 거의 사경을 헤맬 정도로 병이 심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지요. 사실, 그건 에바브로디도에게만 자비를 베푸신 게 아니라, 내게도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그가 세상을 떠났다면… 그건 내게 그 어떤 슬픔보다도 큰 슬픔이었을 테니까요.

28-30 그러니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면서 왜 이리 기뻐하는지 이제 알겠지요? 건강하고 원기왕성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기뻐할지, 그리고 그로 인해 나 역시 얼마나 안심이 될지 생각만 해도 기쁘네요. 에바브로디도를 격하게 환영해주시고, 기쁨으로 안아 주세요! 그는 최고의 환영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날 위해 시작은 했지만, 아직 끝내지 못한 사역을 기억하나요? 에바브로디도가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 결국 그 사역을 완수해냈답니다!

3장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세요?

1 그건 그렇고, 친구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세요! 지난 번 편지에도 썼지만, 다시 반복해서 나쁠 건 없으니, 여러분도 지겨워 말고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듣기 바라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렇게라도 반복하는 게 안전할 테니까요. 그러니 한 번 더 얘기할 게요!

2-6 짖어대는 개들, 즉, 남의 일에 주제넘게 참견하는 종교인들, 하등에 영양가 없는 말만 하는 자들과는 아예 엮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 사람들은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답니다. 난 그 사람들을 ‘칼 대는 걸 좋아하는 할례주의자들’이라고 부르지요. 진정한 성도는, 우리처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으로 주변을 가득 채운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사역을 해낸 것처럼 ‘대단한 이력들’을 자랑하지만, 우린 ‘우리 힘으로 이 일들을 해낼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좀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잖아요? 생후 8 일째 되던 날 할례도 받았구요, 엘리트 베냐민 지파 출신이자, 이스라엘 사람이구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지독할 정도로 경건한 수호자였구요, ‘내 종교가 옳다’고 열불을 내며 방어했었구요, 그래서 여덟 교회를 팁박하는 데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였구요,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걸 철저히 지켰었지요.

7-9 사람들이 뭐 대단한 것이나 되는 양, 거들먹거리는 이력세요? 그딴 거, 난 벌써 찢어서 쓰레기통에 처넣었어요! 그뿐 아니라, 내가 전에 자랑거리로 여기던 것들도 다 버렸지요. 왜냐구요?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네, 맞아요. 내가 전에 정말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을 이젠 내 인생에서 다 없애 버렸어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기에, 한때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이젠 다 하찮은 개똥으로 여길답니다. 난 그리스도를 껴안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 품에 안기기 위해, 그 모든 걸 다 쓰레기통에 처박은 거예요. (분리수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명품 의(義)-하나님의 의(義)-를 얻었기에, 율법목록을 지켜야만 얻을 수 있는, 불량품 ‘짝퉁 의(義)’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10-11 난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파워를 몸소 체험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 또한 그리스도와 죽기까지 동행하기 위해, 무가치한 것들, 허접한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길에 동참하기 위해, 기꺼이 그렇게 한 거예요.

선택과 집중

12-14 내가 지금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 ‘이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리스도께 이르기 위해 내 길을 묵묵히 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먼저 날 찾아와 주셨지만요… 친구 여러분, 날 오해하지 말아 주세요. 난 지금 ‘내가 이 모든 일에 전문가’라고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해 부르시는 그 목표-바로 예수님-를 바라보며 살아왔다’는 말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난 이미 출발선을 떠나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결코 U턴 해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15-16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르길 원하시는 그 목표에만 집중하자구요! 설사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딴 마음을 품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곧 여러분의 흐려진 시야를 깨끗하게 해 주셔서, 결국 잘 보이게 해 주실 거예요! 우린 이미 ‘옳은 길’로 들어섰으니, 이 길을 계속 가자구요! (하나님의 네비만 쭉~ 따라가면 돼요!^^)

17-19 친구 여러분, 날 바짝 따라오세요. 같은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을 주시하면서,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왜냐하면 우린 목표지점이 같으니까요. 물론 ‘다른 길로 가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다른 목적지를 보여 주면서, 자기를 따라오라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동안도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지금 또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 사람들은 쉬운 길만 가려고 하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싫어하구요. 하지만 쉬운 길의 끝은 막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기에 자기 배 채우는 데만 급급하고, 트럼 소리로 찬양하는 등, 온통 관심이 먹는 데에만 있답니다.

20-21 하지만 우리 삶에는 훨씬 더 많은 고귀한 것들이 있지요. 우린 저 높은 하늘나라의 시민이잖아요! (우린 이중국적 소유자^^) 우린 우리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길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부패할 우리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 주실 거예요. 바로 예수님 몸처럼요! 예수님께서는 만물이 원래 있어야 할 곳-예수님 아래, 그리고 예수님 곁-에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막강능력으로 우릴 아름답고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4장

1 내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난 여러분을 너무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뭐든 최고로 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은 내게 엄청난 기쁨이자, 자랑이랍니다. 그러니 흔들리지도, 길에서 벗어나지도 말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길 바라요!

뭐든 기도하세요!

2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하는데, 서로의 차이를 다리미로 썩 다려 없애, 예쁘게 단장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뒤끝 작렬’인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3 그리고, 오, 맞아요,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동역자(Syzygus, yokefellow), 그대는 일이 순조롭게 되도록 도우려고 거기 있는 것이니, ‘메시지’를 위해 일해 온 여인들을 돋는 데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나, 그리고 다른 베테랑 사역자들과 손잡고 우리만큼이나 열심히 일했답니다. 그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적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4-5 매일, 온종일,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다시 말할 게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파티를 여세요! 여러분이 누굴 만나든 여러분은 ‘그들과 한 편이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지, 그들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세요. 또 사람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언제든 오실 수 있으니까요!

6-7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염려는 다 버리세요. 걱정할 시간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간구와 찬양을 통해, 여러분의 걱정거리를 기도제목으로 바꾸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걱정거리를 다 살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감지,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곧 평안을 되찾을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 있는 걱정을 가져가실 때 벌어질 일들은… 정말 놀라울 뿐이죠!

8-9 친구 여러분, 이제부터 최종 요점 정리입니다! (이거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진실되고, 고귀하고, 명예롭고, 진정성 있고, 마땅히 해야 할 은혜로운 일들, 최악의 것이 아닌 최상의 것, 추잡하지 않고 아름다운 것, 저주가 아닌 찬양제목들을 목상하면서 늘 이런 걸로 마음을 채우려 애써 보세요. 내게 배운 것들-보고, 듣고, 깨달은 것들-을 삶으로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최상의 하모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거예요.

‘상황불문’ 감사

10-14 여러분이 내게 다시 관심을 가져주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렇다고 그동안 여러분이 내게 무관심했다거나, 날 위해 기도를 안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걸 보여줄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난

여러분한테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난 ‘상황과 무관하게 만족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적게 가졌어도 많이 가졌을 때처럼 행복하구요, 많이 가졌어도 적게 가졌을 때처럼 행복하니까요. 배부르건, 배고프건, 손에 뭘 쥐었건, 빈 손이건… 늘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찾았다고요! 내가 뭘 가졌건, 내가 어디에 있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 주신 바로 그 분 안에서 난 뭐든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별거 아니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내가 어려울 때, 여러분이 나와 함께해 준 건 정말이지… 너무 아름다운 일이었죠.

15-17 빌립보교회 성도 여러분, 내게 잊혀지지 않는 일이자, 여러분도 잘 아는 일이 있죠. 내가 마계도니아 지역을 처음 떠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던 때, 내게 받은 만큼 (이 사역의 성격상, give-and-take 로) 은혜를 갚은 교회는 여러분 말고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만 유일하게 날 후원해 줬죠. 여러분은 내가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조차 도와줬으니까요. 그것도 한 번만 도운 게 아니라 두 번씩이나 도와줬죠. 난 지금 여러분에게 손을 벌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자비를 베푼 후 얻게 될 축복을 여러분이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8-20 난 지금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걸 갖고 있죠.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선물이 다 쓰고도 남을 정도예요. 그 선물이 제단 위에 바쳐진 향기로운 제물처럼, 달콤한 향기로 온 대기를 가득 채워, 하나님을 끝없이 기쁘시게 해 드리고 있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 주실 거란 사실을 믿어도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영광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베푼 것 + 훨씬 더 많은 보너스’로 갚아 주신다는 걸 믿으시라구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영원, 영원히! 아멘!

21-22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부 좀 전해 주세요. 여기 친구들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하네요. 여기 모든 크리스천들이, 특별히 로마 황궁에서 일하는 성도들이 자기들을 기억해 달라고 하네요.

2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 깊이 깊이 받아 누리시길 바라요!